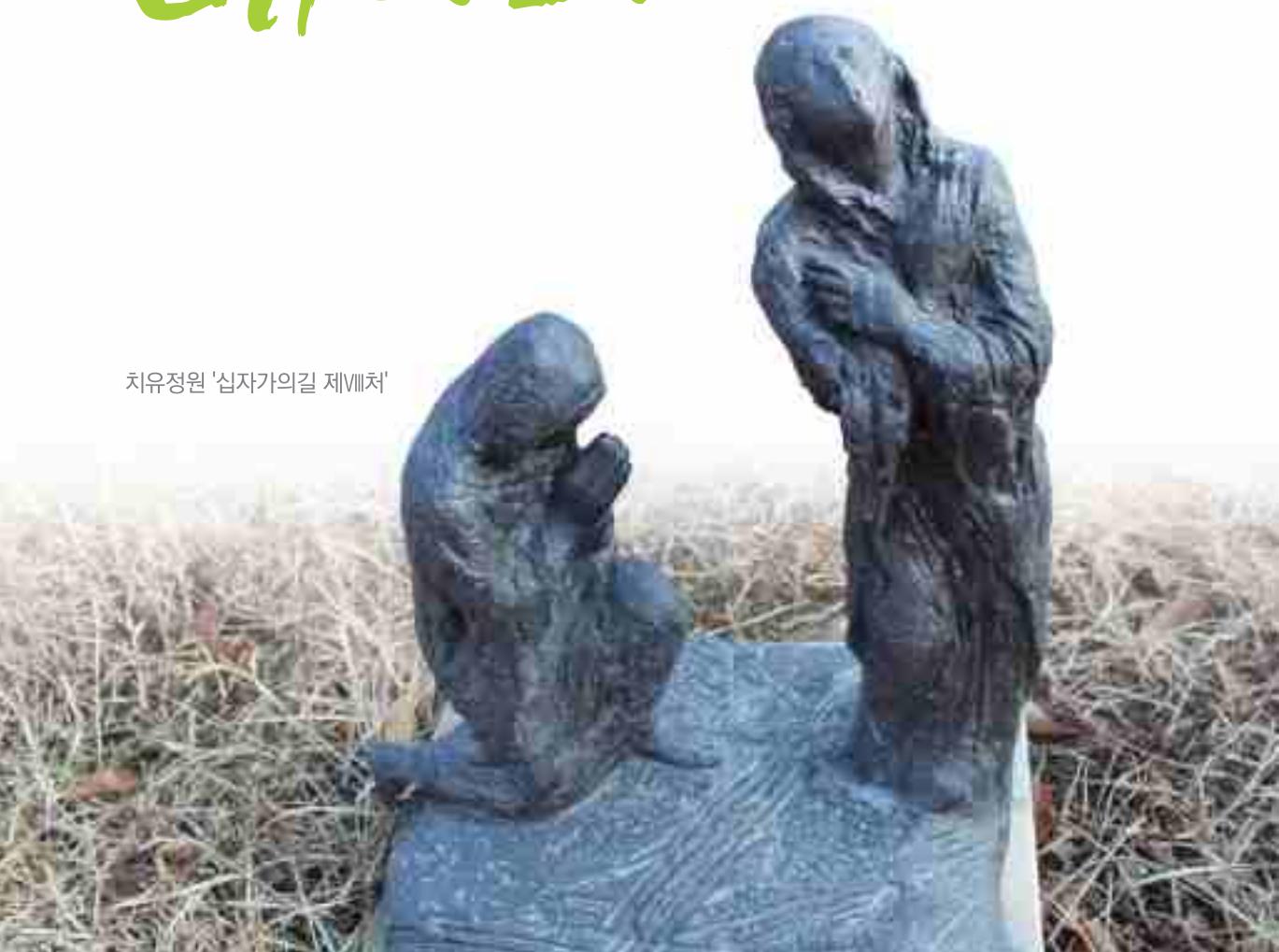


제 59 호

메이트

치유정원 '십자가의길 제VIII처'



증증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제 58 호

메아리

2018. 1



발행일 | 2018년 1월 10일
발행인 | 남금숙
편집인 | 편집위원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모의마을
우)32907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 1166
Tel. 041)732-2085, 0889 Fax. 733-0587

CONTENTS

03. 여는글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 남금숙 원장

04. 종사자글

희망연수를 마치고 / 김진연 생활재활교사

05. 사랑방

요셉3반을 소개합니다

06. 현장의 소리

자아도취밴드 꿈을 연주하다 / 김영숙 생활재활교사

08. 어울림

지역사회봉사활동을 마치며

10. 알림방

성모의마을 첫 회갑잔치 / 김명식 생활재활교사

11. 봉사방

봉사를 통해 느낀 감사와 행복 / 충청대 간호학과 김명섭

12. 소식방

물놀이장, 배구경기, 노래경연대회, 송년행사, 대통령상표창,
조리실리모델링, 이형섭복지재단 후원

14. 사진첩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16. 후원 및 봉사자 현황

18. 수입지출현황

19. 성모의기사수녀회

여는글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남금숙 원장

† Maria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으며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성모의마을을 지원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올 한해를 살아갈 성모의마을 정신을 추구할 수 있는 모토를 고민하다가 성모의마을에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함께여서 고맙습니다.”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중기계획이었던 성모의마을 비전 “개별성과 조화로운 공동체 성장”을 마무리하며 그 취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는 “2020년까지 개별화를 통한 자주성 확립”을 비전으로 최근 들어 장애인의 탈시설화로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2명의 가족이 성모의마을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시설인 성모의마을은 4.7대 2의 비율로 가족과 직원이 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있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가족들이 성모의마을을 떠나 개인의 삶을 주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중증장애로 인해 자립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으로 또 찾아주셔서 노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모든 은인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가득히 전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1레살5,15

종사자글

희망연수를 마치고



김진연 생활재활교사

2박3일 월평빌라 직원으로 구성된 강의 팀과 함께 충주에서 희망연수 교육을 받았다. 복지요걸 이라는 한덕연 교수가 지은 책으로 사회사업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사람다운 사회다운의 모토로 모든 입주자를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한덕연 교수의 뜻을 받아들여 운영되고 있는 경남 거제의 월평빌라의 구체적인 사회사업 방식, 입주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으며 우리시설과는 많이 다른 방법, 방식에 잠깐의 혼란도 있었다. 직원과 입주자의 3:1 비율로 자기가 담당하는 3명에 대해서는 소장과 같은 직책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따로 보고 체계를 두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사업을 한다. 입주자의 욕구와 하고자 하는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그하고 자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하지 않고 일상으로 자유로이 지원한다. 취업을 하고자 하면 같이 지역사회 직장을 알아보고 자취를 원하면 자취방을 같이 구하러 다닌다. 같이 지역사회를 다니며 느끼고 행한 일을 있는 그대로 일기처럼 기록한다. 그게 월평빌라의 유일한 일지라고 한다. 월평빌라에 없는 3가지가 일지, 프로그램, 봉사자

라 한다. 봉사자라 칭하지 않고 입주자 개개인의 둘레사람으로 칭한다. 봉사자들에게 봉사꺼리로 입주자를 대주지 말라 라는 것이다. 꼭 필요 할 때는 입주자가 요구할 시 그 사람을 위한 둘레 사람을 청한다. 사회사업가가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입주자의 둘레 사람을 넓히는 것이라고 한다.

월평빌라가 지적 하는 시설 사회사업의 단점으로는 무리지어 라는 것을 꼬집었다. 무리지어 영화를 보려 가고 무리지어 소풍을 가고 무리지어 집단 프로그램을 하고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될 형태라고 한다. 인지 없는 거주인들을 굳이 무리지어 인지 있는 거주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간접체험이라는 이유로 함께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 본다. 이런 월평빌라의 사회과업 4가지를 가지고 연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사회사업 5주간 계획을 세웠다. 4가지 과업은 취업, 자취, 여행, 일상 이였다. 일상은 대부분 기저귀 떼기, 은행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우리 시설과의 개입은 많이 커 보였다. 내가 선택한 과업은 일상 이였다. 와상 거주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거주인, 몸이 약한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책이라는 과업을 선택해 발표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재 사회사업의 방향, 사회사업가로서의 자세 등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우리 거주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많다는 것에 안타까웠다. 우리시설은 아직 공동체, 함께,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친숙하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보다 개개인의 삶의 주인 될 권리를 찾아주고 지원해 줘야 하는 우리의 숙제가 많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는 성모의마을 거주인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랑방

요셉 3반을 소개합니다.

“니, 우리가 누군지 아니?!
우리가 개성강한 요셉 3반이야!!”



요셉3반의 “기분파”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며 “관장해주세요!, 커피주세요”를 입에 달고 사시는 이○호씨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시지만, 기분좋을땐 밝은 얼굴로 보는이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요셉 3반의 마스코트 이○호씨입니다.

2018년 ○호씨의 환한 미소 기대할께요~

요셉3반의 “즉흥파”

이○석씨는요. 항상 “프로그램 언제 가요?!”라고 하시는 흥 많은 우리 이○석씨 특히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래방!! 18번은 “녹색자대의 사랑을할 거야” 여심을 녹이는 감성의 발라더 ○석씨~응원합니다~



요셉3반의 “먹보파”

박○성씨는 원내에서는 비상식량이 가득한 보물창고가 있고 밖에서는 “항상 배고파~! 밥 언제 먹어?!!”, “양이 적어~~곱배기로~~!” 라며 항상 엄청난 식성을 가진 먹보파입니다.
먹을 때 ○성씨의 얼굴은 가장 행복해보입니다~



요셉3반의 “아끼자파”

패드도 “그냥 더 쓰라고”하시며 근검절약을 실천하시는 라○무씨!
쇼핑을 하면서 싸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셨는지 기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덤으로 맘형으로서 어린 동생들에게 진심어린 말을 자주 해주시는 요셉3반의 정신적 지주랍니다.



요셉3반의 “톰과제리파”

성격도 다르고 커피취향도 다른 우리 !
하지만 공통적으로 간식보다는 커피를 더 좋아하는 우리 위○홍씨와 오○석씨입니다. 형인 위○홍씨를 놀리는 재미로 사는 제리 같은 오○석씨와 항상 투덜대도 웃으시면 받아주시면 위○홍씨 다른 방에서 잠을 주무시지만 서로 알아듣고 만담을 나누시는 위○홍씨와 오○석씨 덕분에 조용할 날이 없네요.

현장의소리(충남예능경진대회참가)

자아도취밴드 꿈을 연주하다

김영숙 생활재활교사



2006년부터 10여년을 했어도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한 시간의 힘으로 스틱소리가 나면 시작하는 것을 알고 각자의 악기는 퍼즐 맞추듯 소리를냅니다. 잘 들어 보시면!!! 귀가 열리고 어깨가 움직입니다.

바로 자아도취밴드의 연주입니다

2017년 음악반을 5가지로 나뉘어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낯선 스탈 강사님!!! 아트 스탈의 자아도취를 노래 자랑스탈로 자연스럽고 부담감 없이 즐기게 해 주셨습니다. 연주의 부담감은 줄이고, 싱어의 부담을 찌금 아주 조~금 올리고요. 두 번째, 송○만씨의 안타까움!!! 갑작스런 드럼의 멈춤으로 음악반에서 아무도 드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슬픔으로만 멈춰 있을 때,,, 세 번째~ 공익님들의 재발견!!! 사회복무요원 배○호씨의 드럼 연주는 쿵짝쿵짝♪♪쿵쿵짝♪♪♪으로 음악반의 슬픔을 흔들어 주었고, 때 마침 사회복무요원 김○혁씨의 드럼 연주는 때굴때굴♪♪♪쿵짝쿵짝♪♪쿵쿵짝♪♪♪으로 자아도취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권○학씨의 어색함과 박○용씨의 어색함!!! 뛰어난 박자감을 그냥 둘 수 없어 간곡히 초대한 권○학씨가 음악반 드럼주자가 되었고, 느낌이 와야 연주를 시작하는! 이분은 아티스트 였습니다.



메인 보컬이 없어서 급하게 목소리로 발탁된 박○용 씨 안동역을 3개월 연습하다. 무조건으로 곡을 바꿔서 2주 연습하고 충남 예능경진대회에 출전했어요~ 모든 노래를 캠퍼처럼 불러주는 노력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애인거주시설의 축제에 참가한 우리팀은 예능대회 도착 순간부터 도움이라는 단어에 완벽을 보여주신 동료들과 이재승 국장님!! 행사가 진행된 흥성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 예능대회 행사임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거주인들, 밀어주는 직원들! 어질어질~ 전혀 배려 받지 못한, 아니 케어를 배려 받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휠체어를 밀고 행사장으로 올라오는 길 올라가다 미끄러져 무서웠고, 울 뻔했어요. 우리의 협동심은 위대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 동료님께서 잡아주셔서~ 아찔했어요.

악기를 뒤쪽으로 어렵게 이동해서 올리고, 돌아서 가보니 무대가 12개의 높은 계단! 국장님의 빠른 결정으



로 휠체어를 옮기기는 무리 악기를 내립시다, 악기를 다시 계단 아래로 내리는데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의 손발이 되어 무거운 악기를 날리듯 내리는데요, 국장님도 대단 하셨습니다, 악기를 배치하고 조율해서 우여곡절 끝에 연주가 시작했습니다.

소리에 신기하게도 다른 기관의 거주인들이 빽댄서와 코러스 해줬습니다, 지친 우리들에게 그들만의 자아도취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놀라게 하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즐기며 연주하고 장려상도 받아서 고맙고 뿌듯했다. 우리 자아도취 밴드 훌륭합니다, 잘해서도 수준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각자의 흥을 합주곡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고 같이 기뻐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아도취여 영원하자!~

올해도 여전히 같은듯 다른 에피소드 가득한 한해였습니다.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함으로 감싸지는 추억! 그래서 자아도취 밴드를 만들어준 추현진 팀장님과 지금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원장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자아도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움직임을 주시고 지혜와 부질없는 용감함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슴 뜨겁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울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마치며~

1조

성모의마을 미남 미녀가 모인자리~ 멤버최고, 분위기최고, 봉사도 최고로 잘할 것 같은 1조 멤버 9인이
상도1리 마을회관에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지내고 있는 성모의마을!!

올해는 그런 따뜻한 손길에 작게나마 감사하는 마음을 보답하고자 지역사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첫 날입니다.

처음이라 걱정과 기대, 그리고 설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뚜~둥, 쟁그랑!!!! 그런데 준비했던 청소도구를 꺼내기도 전에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봉사
활동에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시네요.

당황했지만 구세주 이장임 사모님의 도움으로 마을 회관에 입성했습니다.

1조의 히어로는 당연 서경준 선생님입니다.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된다고 손사래 치던 할머니의 마음을 노
래봉사로 활짝 열어주었죠^^* 그 후로 서경준 선생님은 쭈욱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조원
들은 화장실청소, 유리창청소, 내부 외부 먼지제거, 액자걸기, 말벗 서비스 등등 맑은 역할을 소화하며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유독 따뜻했던 오늘 우리 1조 조원들의 마음도 나눔을 통해 따뜻해진 하루였습니다.

2조

조금씩 추워지는 가을 9명의 직원이 근처 회관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청소도구를 싣고 도착한 회관은
마을 입구에서 모습을 들어냈다. 동네 어른신도 계시지 않아 초반에는 당황했으나 이장님께서 동네분
들이 나들이를 가셨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본래 목적대로 청소를 시작하였다. 빙집을 청소하는 듯 하였으
나 바닥과 어르신들에 손길이 닿기 힘든 창틀과 신발장과 입구 그리고 2층을 청소 하였다. 화장실이 건
물밖에 있다는 것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신기하였다. 추운 겨울 화장실에 이동해야 하는 어른
신들이 걱정이 되었으나 조만간 새로운 공사로 화장실이 안에 들어온다는 소리에 안심이 되었다.

짧은 시간봉사를 통해 깨끗해진 회관과 반대로 더러워진 걸레를 보며 기분이 새로웠다. 나들이를 다녀오
신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변신한 마을 회관을 보고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실천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3조

사회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봉사활동은 한 적이 없었던 차에 늘 받기만 하였으니 함께 나누자는 의견이 모아져 처음으로 순수한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마을회관 청소를 하러 조를 나눠 가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쌓이고 찌든 먼지들과 깨지고 부서진 유리,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는 곳을 분담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며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농사짓느라 밤과 낮으로 일하며 겨울철 외에는 회관에서 협동하여 밥을 해서 드실 시간이 없어 비워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부모님 생각과 어르신들의 농촌생활의 노곤함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도 있지만 편안함을 느끼는 휴식공간을 직원들이 힘을 합쳐 청소를 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노동과 건강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렇게 뜻 깊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4조

직원들과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을회관 곳곳을 누비며 자신의 집보다 더 깔끔하게 청소하는 직원들의 모습에는 지치고 힘든 기색보다 뭐든 도움을 드리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는지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를 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 감을 간식으로 챙겨주시기도 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마을회관이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값진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스미듯 지역사회와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였다.

5조

골룸바 수녀님 외 7명의 선생님들이 대촌리 마을회관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대촌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도하고 담소도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녀 얘기, 동네 돌아가는 얘기 등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전하며 형제 자매들처럼 지내는 장소입니다.

회관에 도착하여 마을 이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청소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각자 위치를 찾아 슬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마을회관 청소는 작게나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신 골룸바 수녀님과 7명의 선생님들이 따뜻한 차 한잔으로 마무리 무렵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오고가는 정의 인사를 나누고 사진 한장을 부탁드렸습니다.

대촌리 어르신들! 반짝반짝 빛나는 마을회관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알림방

성모의마을 첫 회갑잔치

김명식 생활자활교사



축하! 축하! 마리아2반의 윤언니 윤○열씨께서 올해 환갑을 맞이 하여 ○열씨를 위한 축하자리를 준비했어요.

윤○열씨는 2004년 성모의마을 가족이 되어 13년째 성모의마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성모의마을의 첫 회갑잔치의 주인공이 되신 윤○열씨를 축하해 주기 위해 ○열씨 가족들, 직원, 거주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한자리에서 축하해 드렸어요.

예쁜 상차림 뒤로 한복을 곱게 입은 ○열 씨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가족들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싱글 병글 하셨죠. 최상태 선생님의 사회로 직원과 거주인의 꽃다발 증정을 시작으로 케이크 커딩, 귀여운 모습의 어렸을때사진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함께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열씨의 회갑을 축하하는 잔잔하게 울리는 시낭송 시간도 ○열씨를 위해 거주인들의 축하노래와 무조건 노래를 개사하여 ○열씨만을 위한 직원들의 노래도.... 정말 ○열씨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과 직원들이 있으니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 하셨음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윤○열씨의 환갑을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여서 행복 합니다.



봉사방

봉사를 통해 느낀 감사와 행복

김명섭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제가 성모의마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충청대학교 조유나 교수님께서 주기적으로 같이 좋은 일을 하면 어떨까하는 추천에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처음 성모의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러 올 때만 하여도 천주교 신자도 아닌 내가 그곳에서 봉사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과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배운 것도 많지 않은 내가 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성모의마을에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 봉사를 오게 되면서 느낀 것은 오면 올수록 제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곳 성모의마을의 가족 분들에게 오히려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 오래 이야기하길 싫어하는 제가 가족 분들과 쉴 틈 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간 중간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면 평소 무표정이기만 한 제가 웃게 되는 모습에 기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도 성모의마을에 도착해 직원 선생님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활하게 웃으시면서 맞아주셔서 너무 좋았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봉사시설보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내부시설에 직원 분들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려 가는 도중에 만난 가족 분들께서도 웃는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주시는 모습에 역시 봉사를 하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이전에 봉사를 하러 왔던 저를 기억해주시는 가족 분들께서 먼저 인사를 해주는 모습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점심식사를 도와드릴 때 예전에는 식사 도중에 가족 분께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할 때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3번째 봉사인지 몰라도 가족의 요청을 알아듣고 도움이 되고 있는 제 자신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가족 분들과 건물 안에서, 때로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대화를 하며 가족분의 웃는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즐거워 조금 더 멀리까지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했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워 가족 분께서 더워하시는 모습에 짧게 산책을 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복부마사지를 할 때는 변비를 겪고 있는 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변비가 심하여 장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가족 분들을 복부마사지를 도와드릴 때는 평소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전에 복부마사지를 연습할 때 보다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고 땀이 나게 되고 힘듦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른 봉사를 통해 느낄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성모의마을과 가족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3번째가 아닌 4번, 5번 계속해서 가족 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방

물놀이장 (멀리 왜가요? 우리 물놀이장도 좋은데)

성모의마을에는 핫살이 뜨거운 여름이 되면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치유정원의 푸르름과 끝없이 펼쳐진 하늘.. 자연과 함께하는 물놀이장 다른 워터파크
보다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정도 입니다. 올여름 물놀이장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성모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혀보세요!



배구 경기

충남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관람프로그램으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배구경기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동계스포츠답게 충무체육관은 배구열기가 가득했는데요. 우리
성모의마을 가족과 직원들도 그 응원 열기 속에 으쌰 으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TV
로 보는 것 보다 선수들은 훨씬 멋져 보이고 경기하는 모습도 최고였습니다. 성모의마
을에서는 취침해야할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응원을 하며 즐겁게
스포츠관람을 하였습니다.



지원해주신 충남체육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래 경연대회

성모~ 노래자랑!
예심을 통과한 김○신씨를 비롯한 성모 노래꾼들의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매일 점심 드시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박자감을 익히시는 김○신씨 본선 진출자답게
떨지 않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대상은 김○식씨!! 대상이 호명되자 직원이 준비한 망
토를 하고 멋지게 입장하셨어요~ 성모의마을은 흥도 있고 노래도 잘하는 신바람 가족
들이 있어서 올해도 신명나는 한해였어요



송년행사

모두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 주시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문경 선생님, 신기철 선생님의 멋진 행사 진행과 차력쇼도 함께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며 단단해 지는 성모
의마을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해지는 감사함을 느껴보셨습니까? 기억도 세월 따라 희미해지
고 그 자리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함께 하는 자리마다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 지
면서 채워집니다. 송년행사를 통해서 직원분들과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에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국자원봉사자의날 - 대통령상 표창

2017.12.05. 제12회 자원봉사자의날을 맞이하여 강원도 평창에서 2017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가 있었습니다. 성모의마을 개원과 함께 '95년도부터 올해로 22년 동안 월 1회 본 시설을 방문하여 남자 거주인들의 이발봉사를 하여 주신 한밭이발봉사단원님들은 이날 영광스러운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감사드리며, 봉사팀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리실 리모델링

올해에는 조리실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넓기는 하지만 오래되어 낡고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하여 조리실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온창고도 하나 더 지어지고 직원식당이 조리실 안으로 들어와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실 리모델링에 맞춰 전기오븐과 전기식기소독기, 직원식당 식탁을 후원받아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더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기오븐 – 국제로타리대전클럽



전기식기소독장 – 부모회



식탁 set – 부모회

이형섭복지재단 후원

이형섭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식사를 위해 필요한 양문형 배식카 4개와 간식 제공 사용되고 있는 3단운반카 2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섭복지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모의마을 이모저모

07
월

07.05 LH토지공사대전교육원



07.15 한국타이어와 함께하는
공예프로그램



07.01 가톨릭의료봉사



07.01 계룡대제2경비대대



07.20 직원교육



07.21 직원체력단련대회



08
월

08.11 물놀이



08.11 한국타이어가족봉사



08.17 한밭이발봉사



09
월

09.10 직지우쿨렐레 공연



09.13 한국타이어공예프로그램



10
월

10.04 추석연도미사



10.14 단국대 치대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10.14 대형환경



10.16 대추축제



10.17 한국타이어 가을소풍



10.19 삼성화재 가을나들이



10.27 지역사회봉사



10.29 메리워드양상불공연



10.31 소방훈련



11

월

11.02 지역사회봉사



11.03 직원교육



11.05 베이비부머 공연



11.08 대전교구 새신부님들 미사 11.13 개별육구 프로그램 11.14 대전 한사랑라이온스클럽 김장 11.15 상월농가주부회 김장



11.16 삼성화재 김장봉사 11.21 심폐소생술 교육 11.22 거주인 회합연 11.29 국제로타리대전클럽 오븐 증정식



12.05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대통령상표장



12.11 수원교구 새신부님 미사



12.12 반곡초등학교 공연봉사



12.15 배구관람



12.19 배제대 실용음악과 공연봉사



12.24 성탄행사



12.28 송년행사



12.28 종무식



12.29 충청남도지사 표창





사랑을 주신분들입니다

성모의마을에서는 매월 넷째 주일에 후원자님을 위한
감사미사가 봉헌됩니다.



신규 후원자 : 첫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리드텍.기영진.김석화.김요셉.김용구.김용태.김일인.김정호.김홍식.박수진.박혜숙.배지영.이관훈.이현숙.이효정.정인선.조영화.최현석.한결하우징.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홍윤정.홍윤정.황문화.황정희

● ● ● 후원금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주)대율.(주)진미식품.(주)휴베나.한국드라이비아링(주).대림농장.대전교구.대전내동성당.동덕엔지니어링.동신주유소.성모의기사수녀회.아이러브피플.월드카센터.육군계룡사랑후원회.정다운한의원.탄방동성당.태양철물건재상사.해군정보화기획실.해피빈.강대훈.강덕일.강명순.강복순.강승희.강신균.강애선.강영미.강영수.강인숙.강정미.강차중.강창희.강호정.고순덕.고연승.고영숙.고태성.고효진.곽동용.곽명자.곽성훈.곽전구.곽태희.구교상.구본관.구자희.구청자.권기문.권민경.권상로.권순임.권연택.권재순.권태형.금강전기.길숙종.김경미.김경숙.김경임.김광한.김근태.김기.김기철.김길자.김낙윤.김남순.김동일.김동현.김동화.김명숙.김명식.김명종.김명화.김미선.김미숙.김미애.김미영.김미현.김민관.김병민.김복수.김복순.김봉진.김봉희.김부덕.김상현.김석환.김선아.김선엽.김선중.김성남.김성숙.김성태.김소영.김수복.김수자.김수현.김수희.김숙희.김순자.김승우.김시문.김양숙.김양식.김양임.김연희.김영규.김영부.김영숙.김영심.김영옥.김영임.김영자.김영택.김영희.김옥기.김용목.김용철.김용희.김중전.김윤미.김윤중.김윤하.김은경.김은미.김은숙.김은정.김은주.김은형.김이승.김익현.김인규.김인숙.김인욱.김일우.김정란.김정숙.김정순.김정우.김정하.김정희.김종대.김종성.김종심.김종영.김종원.김종윤.김종임.김종학.김주영.김준.김준형.김준호.김진숙.김진순.김진식.김진아.김진자.김진팔.김진희.김창수.김창식.김창현.김춘달.김춘자.김태만.김태모.김태운.김한울.김한주.김한준.김현곤.김현수.김현우.김혜경.김희경.김희성.김희순.김희옥.나승준.나판균.남궁각.남금숙.남봉우.남순애.노경옥.노광원.노덕영.노아네스.노애선.노영례.노은숙.노은주.노정애.노희숙.대명초등학교특수학급.도인록.류관숙.류영미.류재율.류홍.리주옥.모상선.목동균.문경희.문창규.민경식.민병학.민선옥.민영기.박경인.박광천.박광필.박남일.박달영.박미나.박미희.박병삼.박병택.박복남.박상준.박서호.박선용.박선호.박성규.박성배.박성연.박송현.박순주.박승욱.박승현.박영숙.박윤자.박윤희.박은숙.박은정.박은천.박정기.박정희.박종희.박주완.박준성.박지연.박진욱.박진홍.박진배.박찬주.박찬현.박찬희.박창규.박창기.박춘지.박해운.박해임.박현미.박현숙.박혜경.박효식.박희호.방계순.방성식.방연옥.방영자.배승호.백길종.백성기.백승준.백진기.변경봉.변두균.변혜숙.복진을.서경자.서광자.서교분.서교택.서기련.서단아.서명원.서영숙.서원익.서장원.서정석.서지연.선우환호.성상엽.성정모.성희창.소성섭.손경미.손동래.손석재.손세욱.손은숙.손형기.손형옥.송관우.송기성.송명옥.송영익.송재훈.송철영.송춘실.수상덕.승병희.신경식.신미숙.신미순.신미현.신숙희.신순자.신순현.신연화.신정자.신진호.신향순.신형모.신호철.신호신.심명옥.심복석.심형석.안남순.안동숙.안명순.안미훈.안상길.안성호.안종희.안주영.양미경.양옥석.양태식.어완.엄기성.여운석.연산중학교특수학급.연제혁.염규홍.염윤자.염주란.오경순.오광순.오명선.오명화.오석현.오숙자.오연임.오웅수.오일교.오점숙.오종오.오주영.오주은.오준식.오준이.오한나.오현경.오혜원.오화진.온유진.옹명임.유인자.유전.유제준.원용희.원재화.원종철.유경희.유명희.유미.유부림.유선희.유양호.유연희.유열호.유영구.유영민.유영철.유이선.유인운.유재현.유향옥.유혜영.육근홍.운계열.윤길중.윤문경.윤석권.윤석남.윤수자.윤순자.윤여분.윤여직.윤여철.윤영광.윤영섭.윤영휘.윤옥자.윤오희.윤완규.윤은화.윤재명.윤정운.윤진영.윤한섭.이경미.이경순.이경자.이광수.이규옥.이근표.이기남.이기상.이기석.이기학.이누욱.이다리야.이덕례.이도영.이동수.이동호.이두화.이명수.이명자.이민욱.이민표.이병진.이복규.이상범.이상영.이상욱.이상은.이선량.이성광.이성민.이성순.이성하.이세혁.이수경.이수형.이숙희.이순옥.이순조.이승남.이승옥.이승훈.이연호.이연희.이영란.이영미.이영옥.이영임.이영희.이용구.이용규.이용남.이용성.이우영.이웅호.이원길.이원웅.이월향.이유미.이윤복.이은수.이은진.이은철.이장.이장현.이장호.이장희.이재봉.이재순.이재승.이재연.이전규.이정구.이정규.이정미.이정범.이정자.이준오.이종규.이종숙.이종옥.이주경.이준복.이진경.이진의.이진형.이충근.이치자.이택주.이해운.이향래.이현래.이현수.이현주.이현희.이형섭복지재단.이혜숙.이혜영.이혜옥.이혜진.이호덕.이홍천.이화석.이화연.이홍재.이희영.밀신주방.임경수.임경옥.임덕순.임동훈.임문자.임미자.임민준.임민찬.임상수.임세영.임재신.임찬욱.임창래.임향빈.장경수.장기욱.장동수.장명호.장미화.장선옥.장순자.장영희.장우상.장원재.장유창.장윤선.장정숙.장진영.장진희.장한준.장광운.전남숙.전민동성당.전선아.전연인.전용달.전창선.전혜련.전희선.정경순.정경애.정계순.정병

호.정보옥.정상수.정석임.정석환.정선미.정선수.정선주.정소영.정연수.정영란.정영진.정유진.정은남.정은석.정은선.정은옥.정은주.정재구.정지풍.정지현.정창수.정철민.정총희.정태형.정하양.정혜숙.장화숙.정한림.정훈경.조경숙.조구상.조규정.조기호.조남욱.조마르타.조성대.조성혁.조숙자.조숙희.조영갑.조영록.조영홍.조옥분.조유성.조진.조한수.조현.주면탁.지영옥.지영철.진규호.진은영.차미정.차영철.차옥남.차은.차인자.채경란.채미자.채병석.최경묵.최금옥.최덕화.최명희.최문자.최백석.최범순.최병립.최봉순.최상윤.최선.최성근.최수민.최순옥.최영범.최영은.최영훈.최우연.최윤정.최인규.최인영.최재원.최정길.최주희.최혜수.최혜연.최효인.최희례.추현진.편재영.하나병원유성근.하만웅.하무순.하영호.하옥경.하재영.하태천.한강섭.한경희.한국타이어.한동림.한명화.한상선.한상조.한선화.한원규.한치권.허신자.허홍근.현현섭.호승환.홍건표.황광표.홍근선.홍명숙.홍성옥.홍승무.홍영옥.홍영일.홍예인.홍은실.황규홍.황명구.황선철.황인옥.황현숙

물품후원

(주)애경, (주)정식품, LH한국토지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가톨릭의사회, 계룡대6367, 고은어버이집, 광석중학교, 국제로타리대전클럽, 궁골된장, 권영학가족, 이수호가족, 김도희, 김동민가족, 김명례가족, 김봉진로사, 김양미(논산두레쥬르), 김양숙, 김연수가족, 김영부, 김영자(세실리아), 김윤환, 김인수 신부님, 김원혁가족, 김한솔, 남금숙, 노근비, 논산푸드뱅크, 논산계룡축협(장군마트)논산장례식장, 놀뫼중증장애인지립생활센터, 단국대학교교과대학, 대전동산중학교, 대전약사회, 대형환경, 메리워드윈드양상블, 밀로식품, 박경인, 박남일, 박서용, 박종우신부님, 박철민가족, 박해임, 베이비부머, 삼성화재RC나누미, 상월농협, 상월면자치위원회, 서경준, 성낙순가족, 성모의마을부모회, 성모카페, 성심당, 손선미가족, 손예인가족, 송동섭, 송일만가족, 송촌동성당, 송치민, 성모의기사수녀회, 신도안종합상사, 신순자, 양주호, 연산중학교교감선생님, 오우석가족, 오진영, 오화진, 유희자가족, 이기범, 이기환, 이마리아, 이병석가족, 이소영, 이영숙, 이재봉, 유보상가족, 이지은, 이지희가족, 임동훈, 임세영, 작은자매의집, 장재희가족, 장태산정육점, 전민동성당, 전혜선가족, 정규연가족, 정슬기, 조누수, 조유나, 조정연, 최경덕, 최상태, 최영은, 최영현가족,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남도청, 카리타스유통, 하지수가족, 한국전력공사(논산), 한국타이어, 함해자, 화진산업개발, 황인범

※ 알림 –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었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 생필품 |

세제, 고무장갑, 휴지, 성인용기저귀, 물티슈 등

| 식품 |

과일 및 간식류

| 그 외 |

냉장고, TV,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봉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정기자원봉사팀

궁동성당. 계룡대자원연대. 김윤중가족. 김종필가족. 내동성당. 노은동성당(학습봉사). 덕명동성당. 도룡동성당. 대형환경. 박정민. 반석성당. 삼성화재RC나누미. 삼위일체성당. 안제성가족. 전민동성당. 정양원. 중동성당. 한국타이어동그라미봉사단. 해군정보화기획참모부. LH 토지공사 대전지역본부.

그 외 봉사해 주신 분들

계룡대2경비단. 계룡대6367부대. 공군군악의장대대. 대전로타리를법. 대전한사랑라이온스클럽. 동방고. 부여성당. 상월농가주부회. 송촌동성당. 천안우체국물류지원단. 충청대간호학과. LH 토지공사 대전본부교육원

이·미용봉사

박양순아드레. 한사랑라이온스미용봉사. 한밭이발봉사단

의료봉사

가톨릭의사회. 단국대치대

꽃꽂이봉사

공주신관동성당제대회

공연봉사

메리워드양상블. 반곡초등학교. 베이비부머공연단. 배제대 실용음악과. 직지우쿨렐레양상블

미싱봉사

김정순. 염영숙. 이영임. 이정. 진영희



후원가입신청안내 (한사람 더 후원회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전화 또는 성모의마을 홈페이지(www.smo.or.kr)를 통해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전화, 지로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가입 후에는 회원증과 함께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아래 계좌 중 자동이체가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신 후 본인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모의마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 및 변경시 참고)

폰뱅킹을 이용하는 방법

폰뱅킹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은행 대표전화(아래)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여 본인 확인 후 아래의 계좌번호 중 자동이체 받을 계좌번호를 말씀하시면 등록이 됩니다.



후원계좌번호

법인후원계좌번호

- 농 협 461058-51-011210 (대표전화 : 1588-2100)
- 국민은행 457-25-0005-696 (대표전화 : 1588-9999)
- 하나은행 663-113251-00105 (대표전화 : 1588-1111)
- 신한은행 100-009-187570 (대표전화 : 1577-8000)

- 예금주 -
성모의마을

시설후원계좌번호

- 농 협 351-0762-7852-13 (대표전화 : 1577-2100)



후원금수입지출현황 (2017년 07월 01일 ~ 2017년 12월 31까지)

(단위: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내 역	
과 목 명	금 액	과 목 명	금 액
이월금	199,772	급 여	34,072
지정후원금	4,340	제 수 당	21,076
비지정후원금	133,512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7,799
		사회보험부담비	5,394
		기타후생경비	3,322
		기관운영비	824
		회 의 비	1,100
		여 비	560
		수용비및수수료	6,834
		공공요금	10,366
		제세공과금	812
		시 설 비	6,072
		자산취득비	2,690
		시설장비유지비	3,626
		차량비	
		연료비	9,856
		자활사업비	
		일용잡급	
	337,624	합 계	124,403

콜베 성인의 영성을 살아가는 성모의기사수녀회에 초대합니다.



[창립]

본 회는 1917년에 로마에서 원죄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M.I)를 설립하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유지를 받은 미에치슬라오 미로하나 신부에 의해 1949년 일본 나가사끼에서 창립되어 M.I의 정신으로 사는 수녀회입니다.

[정신]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의 정신에 따라서 원죄없으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성심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일본, 폴란드, 한국에서 M.I의 정신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출판사업과 한국에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모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소자모임〉 매월 넷째 주일 오후 2시
 문의 : 041-732-3583(수녀원) 041-732-2085,0889(사무실)
 성소담당자 : 010-3399-3583
 주소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선비로1166(대촌리 122-1) 우)32907
 ※ 성소상담 수시가능
 홈페이지 _ www.fsomik.co.kr

성모의마을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수도권에서 찾아올 경우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정안IC<22.2Km>
 약40분 소요 → 공주·논산방향(국도23번)
 → 유평교차로 신원사방향(지방도로697)
 → 연산방향(지방도로697번) → 대명초등학교
 (1.5Km) → 성모의마을

》 대전 영남권에서 찾아올 경우

서대전IC<40Km> → 대전~논산간(국도1호선)
 → 연산검문소(우회전), 연산삼거리에서(12Km)
 → 상월방면(697번 지방도)
 → 성모의마을

01 씨시이샵을 운영하시는 이이는
100만원입니다.

사장님이십니다.

메이리에 게제된 사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